

19대 대선 여론조사보도 되돌아보기

김 춘 식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chunsik@hufs.ac.kr



목차

I.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II. 쟁점 1: 선거여론조사의 과학성 및 신뢰성

III. 쟁점 2: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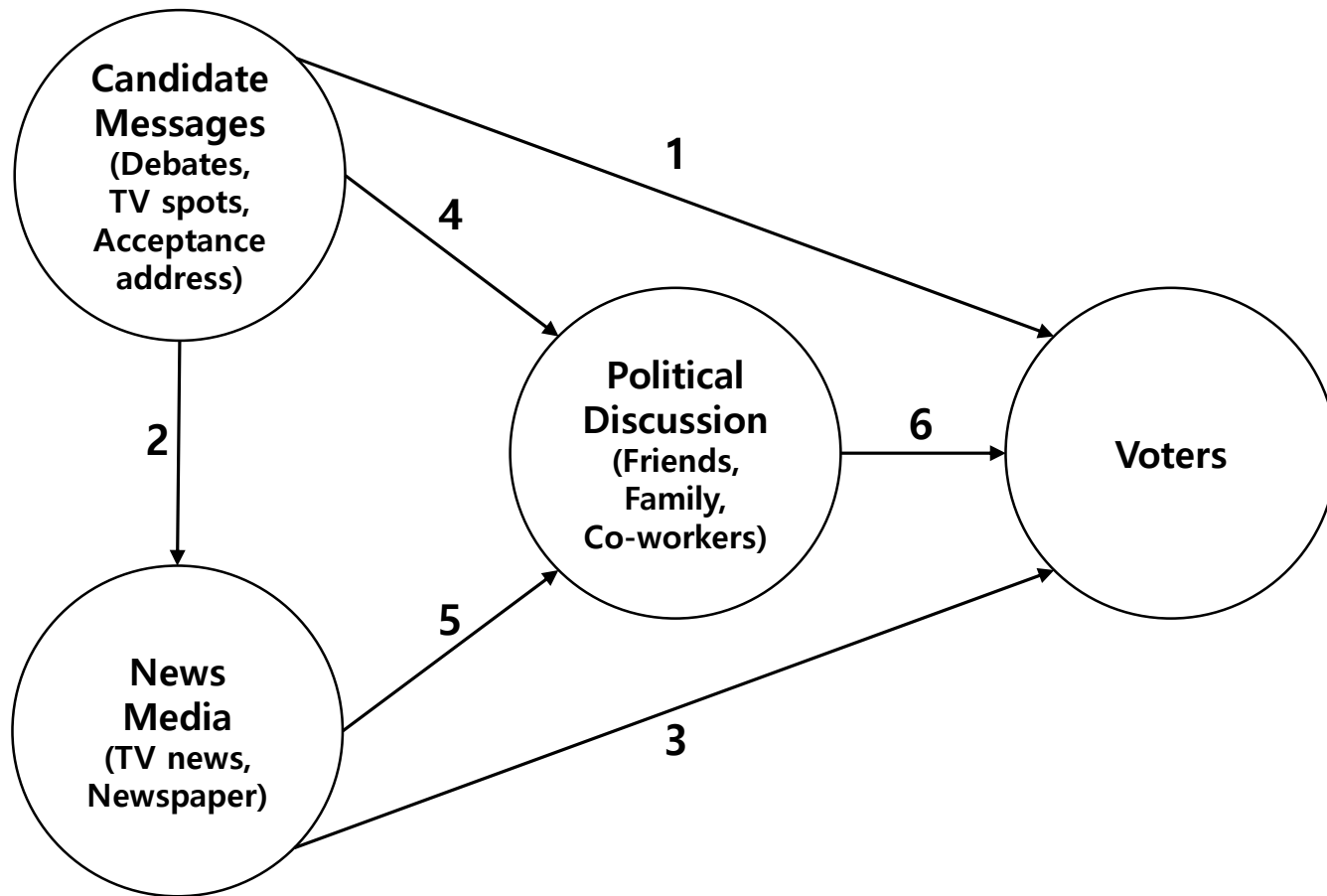
IV.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정

V. 보도준칙 제정 이후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현황

VI. 결론 및 제언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Campaign Information Flow



Campaign information flow. From Benoit, W. L. (2007). *Communication in political campaign*. New York: Peter Lang., p. 23.

뉴스의 역할

The news media, our windows to the vast world beyond our direct experience, determine our cognitive maps of that world.

Public opinion, argued Lippmann, responds not to the environment, but to pseudoenvironment constructed by the news media (p. 2).

.....

McCombs, M., & Reynolds, A. (2002). News influence on our pictures of the world.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1-1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formation about what government and interest groups are doing affects citizen 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The importance of reliable information for everyday politics, the quality of information is also essential to our safety and peace of mind during times of crisis....(p. 3)

Bennett, W. Lance (2005).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News is for the citizen

Three Important Functions of Media in Democratic Societies

1) 공론장(public forum) 제공

To provide a forum for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to debate their qualifications for office before a national audience

2) 識見있는 市民(informed citizen)의 양성

To contribute to informed citizenship by providing a variety of perspectives on the important issues of the day

3) 把守犬(watchdog) 역할

To serve as a "watchdog" scrutinizing the actions of government officials on behalf of citizens, most of whom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closely follow the actions of politicians and the government

News is for the citizen



Attentive citizen [參與 市民]



Efficient citizen [效率的 市民]



Informed citizen [識見있는 市民]

Theories of Selectivity

- ***Partisan polarizations***

People prefer to encounter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ir beliefs and avoid informat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those belie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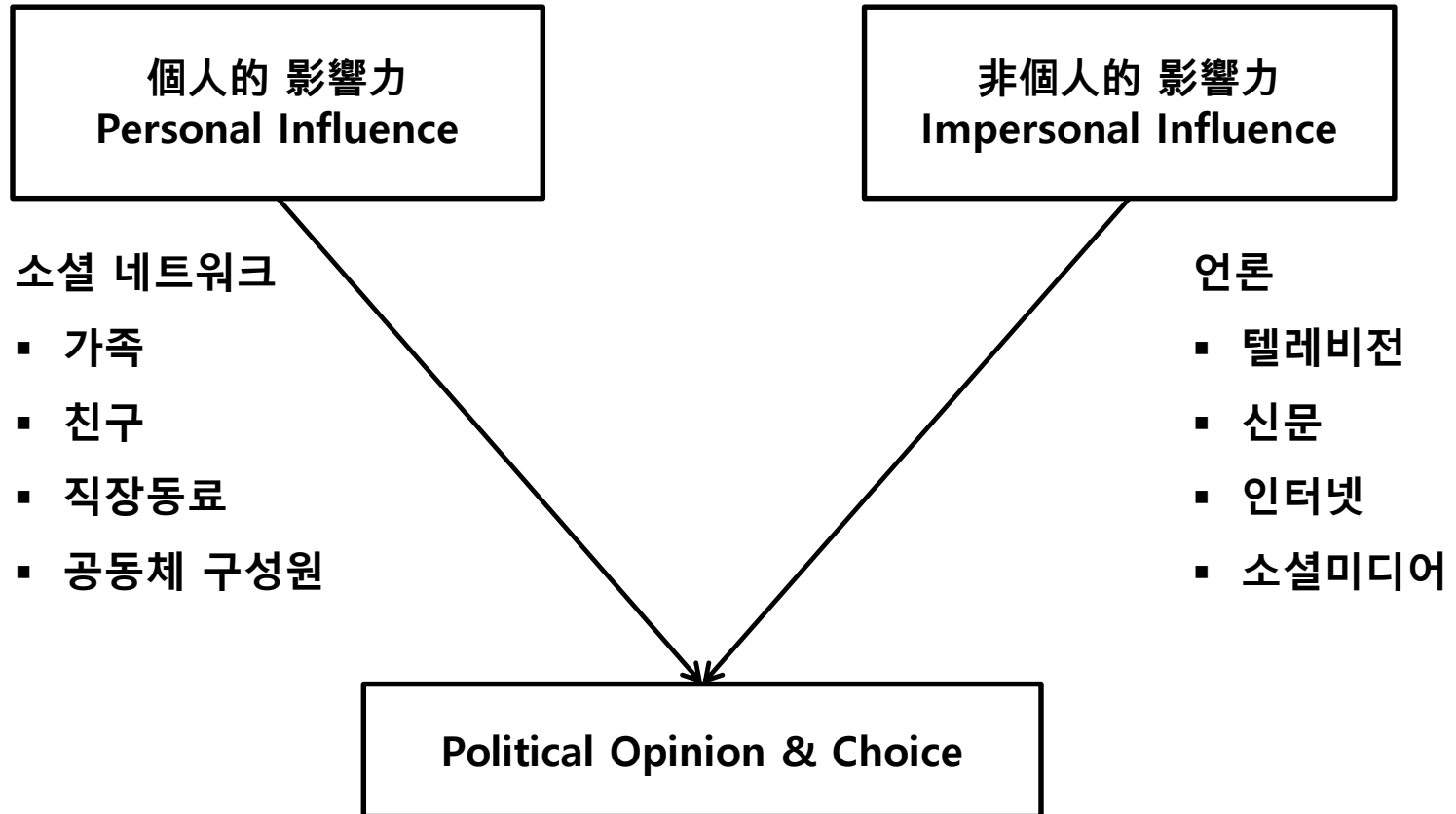
- ***Issue public***

People seek out information about subjects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or interesting to them, and tune out information about others su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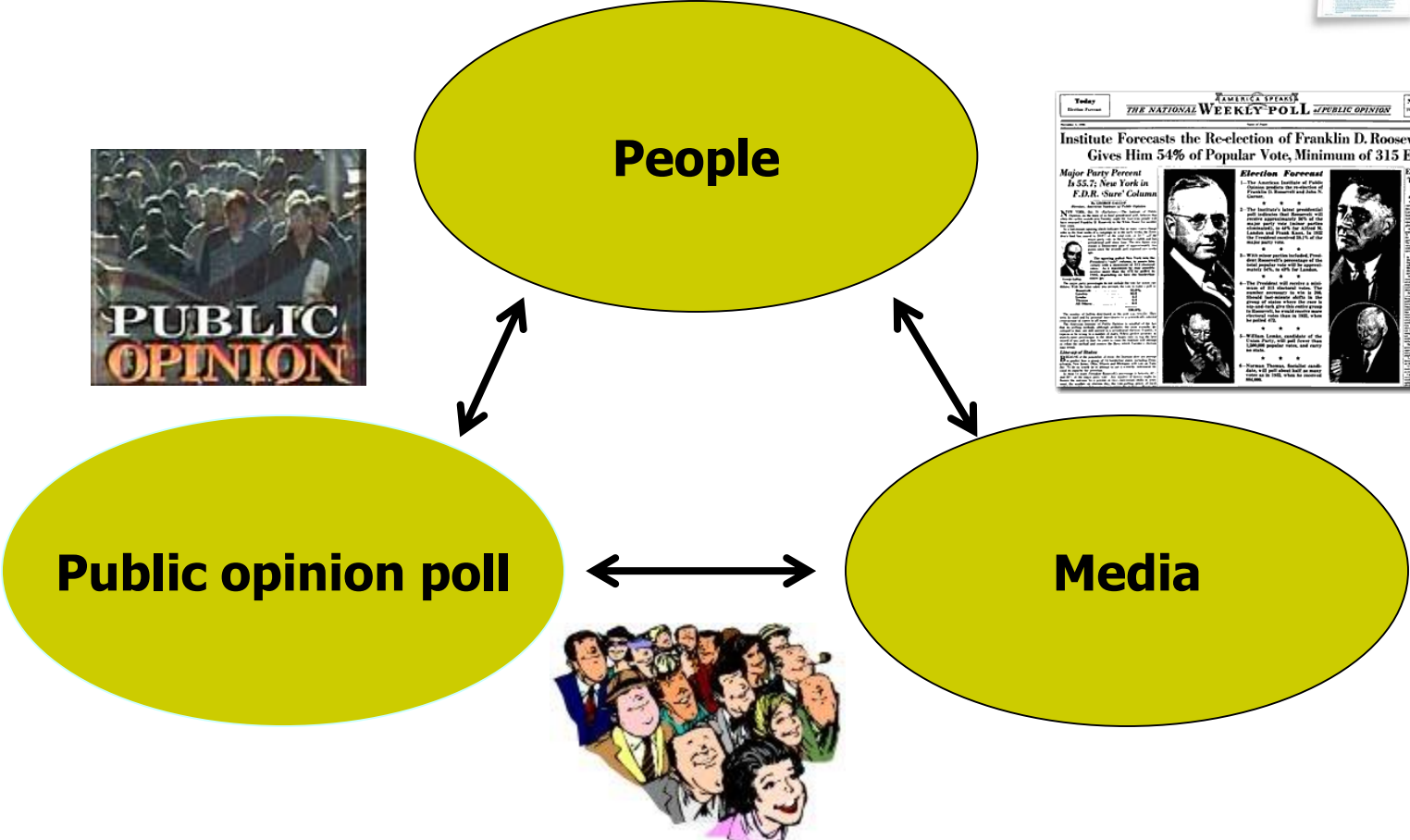
- ***Attentive public***

People interested by politics tune in to all forms of news, while the political majority pays very little attention to news in any medium.

유권자 의견 및 정치적 선택 결정 요인



A Triangle of Interrelationship



여론(public opinion)의 개념 & 정의

1. 개인, 집단, 조직, 제도를 포괄하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의견 및 태도

(McLeod, 1994)

2.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의해 표현된 신념의 복합체

(Hennesy, 1975)

3. 특정한 때와 장소에 있어서 사람들의 집단이 지니는 판정이나 태도 및 신념

(Powell, 1951)

Noelle-Neumann의 정의



1. 어떤 이슈에 대하여 의식적이고도 합리적인 토론을 행한 후에 도달한 사회적인 판단, 사회적 변혁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조건
 - 합리성(rationality)으로서의 개념
2. 동화되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로서의 개념
 - = '침묵의 나선이론'의 기초

쟁점 1: 선거여론조사의 과학성 및 신뢰성

1. 모집단의 문제

- 확률적 표본 추출법을 통해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추출
- 실제 표본 추출은 모집단이 아닌 표본의 틀(frame)인 구체적인 리스트 (예, 유무선 전화번호부)
- 모집단과 틀의 차이가 작을수록 모집단을 설명하기에 적합

2. 표본집단 선정

- 할당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 방식 (조성겸, 1997)
 - 촉박한 조사 기간(속보성) 및 저예산으로 인해 확률표집 불가능
 - 확률표집방법(예, 생일법)으로 선정된 응답자로부터 답변을 얻으려면 5차례 정도의 재통화를 해야 하나 조사 기간 및 비용의 문제 발생
 - 정해진 응답자 확보 실패 시 목적이 아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 재할당 표집관행
 - 생일이 가장 빠른 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나 가정마다 특정인이 답할 가능성이 큼
 - 특정 계층집단(진보, 보수, 고연령대, 특정 지역)의 높은 무응답률 혹은 적극 참여로 인한 표본의 편파 → 가중치 부여를 통한 지지율 산정

JTBC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 (숙명여대 통계학과 김영원 교수 페이스북)

※ JTBC 기사의 핵심

"무응답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표본이 유권자의
뜻을 잘 대표하면 신뢰 있는 결과가 나온다"



[팩트체크]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믿어도 될까?

[앵커]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에도 여러 건 발표됩니다. 이런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인데요, 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16898

1) 우리나라 전화조사는 랜덤추출을 기반으로 한 층화확률추출과 할당추출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연령대.지역별로 추출한 유효 전화번호에 대한 조사가 recall 등을 통해 접촉실패나 무응답 없이 거의 완벽하게 (다시 말해 추가적인 여분의 전화번호 투입 없이) 이루어지면 층화확률추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표본추출과정 없이 성.연령대.지역별로 할당된 머릿수만을 채우면 되는 조사가 할당추출입니다.

2)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접촉실패/무응답 때문에 투입되는 총 전화회선의 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응답률이 높으면 할당추출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층화추출에 가까운 조사가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이 추출됐다고 보는 겁니다.

3)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응답률=(응답완료사례수)/(응답완료사례수+거절및중도이탈사례수)은 정확하게는 협조율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의 응답률 계산에서는 분모에 '적격률*접촉실패사례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접촉실패사례수를 분모에 넣기 않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게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응답률 10%라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응답률이 10%라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도 응답률이 우리나라 수준인데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라는 방식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됩니다.

4) 우리 경우 접촉실패사례 중 적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회사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 (그밖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 등을 고려해 현재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응답률 계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5) 스마트폰 앱, 인터넷 조사, 또는 특정 DB를 사용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coverage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때문에 응답률만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응답률도 일반 전화조사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6) 기사 중 "선관위가 표본을 직접 관리...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관위라 함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심위에서는 공표된 조사의 장단점을 사용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심위에 등록되었다는 것이 해당 조사의 신뢰성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 유무선 전화조사

- 유선전화조사의 한계(비이용자는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됨)
→ 한국통계학회가 한국조사협회에 보낸 공문

참고)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 여부에 대한 해석 답변 (한국통계학회)

한국통계학회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709호 승135-708
E-mail : office@kss.or.kr 홈페이지 : http://www.kss.or.kr
TEL 02)3493-7862, 567-2859 FAX 02)564-7285

통 계 : 2011 - 099 2011. 10. 14
수 신 : (사) 한국조사협회 회장
제 목 :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 여부에 대한 해석 답변 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협회는 우리 사회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 조사윤리 강령에 의해 마련된 여론조사를 배격하며, 통계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본 한국통계학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71년에 창립되었으며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급증하고 있는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조사방법론의 과학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저희 학회에서는 이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s.or.kr>)

별 첨 : 1.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 여부에 대한 해석 답변서 1부. 끝.

사 단 한국통계학회장 최홍후



-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은 검증된 바 없음, 극히 제한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사용 자제
- 특히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문과 방송 등에서 인용하는 것 자제, 불가피할 경우 해당 조사가 갖고 있는 제한점 명기하여 보도
- 표본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대부분의 오차들 수반
- 여러가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비용 투입되지 않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특히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에서는 부적합

3. 유무선 전화조사

- 최근에는 RDD(Random Digital Dialing)방법 사용
 - 컴퓨터를 통해 지역번호와 국번을 제외한 나머지 4자리 번호(0000~9999)를 컴퓨터로 자동 추출(난수 발생)하여 선정된 번호를 대상으로 전화를 거는 여론조사 방식
 -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는 번호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지역번호와 국번이 제외되어 조사의 성격(지역조사 v. 전국조사)에 따라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4. 오차와 오차한계 해석 (윤석홍, 1997; 선우동훈·윤석홍, 1999)

- 오차 = 표집오차 + 비표집오차
- 비표집오차
 - 표본추출, 면접원 차이, 유도성 질문, 개념 이해 및 기억력 부족, 답변 거부, 틀린 답변, 자료 코딩 및 통계 처리상의 오차 등이 원인
- '표집오차'가 아닌 부정확한 용어 사용 (권혁남, 1991)
 - 최대오차범위, 오차한계, 최대허용오차, 허용오차 등
 - 위의 용어는 비표집오차를 모두 포함한 오차로 오해하게 함

- 전체 표본이 아닌 하위 표본(서울, 강남, 20대, 여성 등)을 사용할 경우 오차한계는 더욱 커짐

표본수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2500명	3000명
표집오차 한계	±4.4%p	±3.1%p	±2.5%p	±2.2%p	±2.0%p	±1.8%p
신뢰수준	95%					

5. 설문 문항

- 폐쇄형 질문 사용
 - 몇 개의 답안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 선택하게 하는 방식
 -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뒀야

6. 선호도, 지지도, 투표의사 (양승찬, 2007)

- 선호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지도: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 투표의사: "오늘 투표를 하신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선생님께서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다음 네 사람 중 누구를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합도("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 호감을 더 가지고 계십니까?")(리얼미터)

7. 정당 내 혹은 정당 간 대결

- 정당 내 대결 조사는 특정 정당지지자에 국한되는 게 바람직 (이재창, 1995)
- 개방형 경선제를 채택한 경우 투표집단 유형별(당원 v. 비당원) 반영 비율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
- 무응답 비율이 높을 경우 판별분석을 통해서라도 무응답률을 낮추려는 시도가 필요 (권혁남, 1997)
- 투표참여의사 없는 이들은 제외: 투표참여의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후보 결정을 묻는 게 바람직 (권혁남, 1991)

8. 선거에 영향을 줄 다양한 사건과 관련한 가상 상황 설정

- 특정 상황 전제는 응답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양승찬, 2007)
예) '만약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단일 후보를 낸다면...'

9. 문화적 특성

- 솔직한 정치적 의견 표명 주저: 높은 무응답률 과 조사거절률의 원인 (조성겸, 2001)
- 5점 척도 문항에서 '3점'(중간, 보통이다, 중도 성향)으로 응답 비율이 서구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이재창, 1995)

쟁점 2: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행

여론조사 뉴스

- 조사방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여론조사를 뉴스의 형태로 전하는 관행 채택
- 선거기간 중 후보의 인기도 변화
 - : 뉴스가치가 있지만,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문제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여론조사를 극도로 집약된 숫자로만 보도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나의 움직임이지 않는 정체로 잘못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음
- '굵직한 뉴스', '경성뉴스'(hard news)로서의 여론조사보도
 - : 여론조사결과를 숫자로 정리하는데 치중할 경우 이러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소홀히 하게 됨
 - 여론조사는 마땅히 정치과정으로 분석되어야 함.
한 사건으로 취급되어 hard news 양식으로 보도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

여론조사 뉴스

- 여론조사 뉴스는 종종 이슈에 대한 공중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근거가 있는 의견을 가졌다는 잘못된 인상을 전달
→ 여론조사 결과를 민심으로 '착각(?)'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언론은 심층적인 태도(감정)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가 일반적인 질문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매우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음
→ 언론은 "명확한(clear)" 공중의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임

- 언론은 “모름(don't know)” 응답률이 내포하는 함의를 고려하지 않음

※ [“모름(don't know)”의 함의 (Schuman, 2008)]

- 선택행위(예, 투표 대상자 및 정당 선택)는 여럿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갈등적 상황
-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면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 표현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음 → 'artificial results'를 낳음

※ [여론조사 뉴스] (Bennett, 2012)

- 응답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을 강요
- 언론은 공중이 이성적이고, 지식을 갖췄고, 현실 참여적이라는 신화를 공유
하여 대다수가 '의견없음'이라는 결과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

선거여론조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무관심 혹은 '의도적 무시'

- 여론조사 설계에 대한 특성을 따지지 않고 조사비용만 고려해서 선거 여론 조사 의뢰
- 선거 여론조사 관련 필수 정보 제시하지 않고 여론조사 기사 작성
- 여론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아닌 단순한 후보 지지율의 변화에 주목하는 관행

세계일보

2016년 05월 04일 수요일 030면 오피니언

시론

부적절한 관행의 합작, 총선예측 실패



김춘식
한국언론정치행정연구소
대학원장·언론학

2003년 2월 중순 김립은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담 후세인 제거를 위한 '이라크와의 전쟁에 대해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는 나라는 질문에 이어 '만약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는다면 화가 나겠는가'라는 문항을 추가했다. 선임 편집장인 데이비드 무어는 자기 의견에 대한 확신이 강한 이들일수록 파병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두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주 판이했다. 전자의 물음에 대해 참가자의 59%는 전쟁을 지지한다고 했고, 38%가 반대한다고 했으며, 3%는 잘 모르겠다(혹은 무응답)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정서를 묻은 질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41%

로 가장 높았다. 30%는 전쟁이 나면 화가 날 것이라 했고, 29%만이 전쟁이 나지 않으면 화가 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08년 8월 시사월간지 '위싱턴 먼슬리' 사이트에 게시된 무어의 글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먼저,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심각한 고민 없이 쉽게 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론조사 전문가와 언론은 응답자의 '의지'를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어디 관행적으로 무시한다고 말하는 게 옳다. 이들은 결과로 얻어진 단순 수치를 민심으로 간주해 자신의 직업적 이해를 떨어붙인다.

호남·보수유권자 정서측정 의면한 뒷

20대 총선 국면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투표 의도, 투표 후보, 당선 가능성, 지지 정당을 물었다. 일부는 인물 혹은 정당 호감도를 묻거나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질문을 사용했다. '국정안정' 혹은 '여당 독주 방지'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를 물어 전략적 투표행위를 측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권자의 정서를 묻는 질문은 없었

다. 가령, 호남지역 유권자의 국민의당 선택은 '국정안정'이나 '여당 독주 방지'라는 틀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이들의 투표행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실망한 보수적 유권자의 표심 또한 국민의당으로 옮겨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신을 동일시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너무도 많았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맥락은 유권자 정서 측정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준다.

두 번째 부적절한 관행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함의하는 바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지지 여부를 물었을 때 불확실한 태도를 지닌 유권자의 비율은 3%에 불과했지만 정서의 밑바닥을 살핀 조사에서는 무려 41%에 달했다. 사회학자인 하워드 슈빈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무지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했다. 이슈가 복잡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 무응답률의 크기는 증가한다. 따라서 선거와 같이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응답을 강요받으면 유권자들은 입장 표명

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20대 총선에서 격전지로 분류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한 지역구 여론조사의 경우 무응답률이 25%(용산, 중앙일보 4월 7일 보도)를 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를 무시한 채 응답자의 의견만으로 순위를 매기는 관행을 되풀이했다.

'잘 모르겠다' 답변의 속뜻 언론이 간과

조사회사의 직업윤리관 또한 20대 총선 여론조사 예측을 실패로 만든 또 다른 요인이었다. 2011년 한국통계학회는 한국조사협회에 의뢰한 ARS 조사방법의 과학성 여부 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에서 ARS 조사방법이 선거여론조사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서서 공문 형식으로 보낸 바 있다.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가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의 직업윤리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들이 뉴스 형태로 접한 20대 총선 여론조사의 대개는 언론과 조사회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었다. 결국 조사방법론의 결합, 조사기관의 윤리관 결핍, 언론의 경매저널리즘 관행 간 합작이 20대 총선 여론조사를 실패로 만든 셈이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행

1. 타당한 조사보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 (이준웅, 2004)

- 필요조건: 과학적이고 신뢰할만한 방법론 적용
- 충분조건: 정치맥락 요인이 고려된 이론적 모형을 적용한 설명

2. '바다낚시'식 여론조사 (이재창, 1995)

- 많은 조사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만 선별하여 보도하는 방식
- 설문지를 확인한 후 보도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법이 필요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행

3. 가장 전형적인 선거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

(선우동훈·윤석홍, 1999; 양승찬, 2007; 김춘식 외, 2012)

- 1) 표집오차를 무시한 결과 해석
- 2) 신뢰구간을 조사 신뢰도로 착각 (신뢰구간 \neq 조사신뢰도)
- 3) 하위 표본 해석의 문제: 전국 조사에서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 4) 기사 작성자 개인 의견의 개입
- 5) 헤드라인, 1)~4)의 문제점 재현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행

- 1) 표집오차를 무시한 결과 해석
 - 제목의 수치를 절대값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음
 - 차이가 없는 결과에 기초한 순위 매기기 시도

- 2) 신뢰구간에 대한 잘못된 해석 (윤석홍, 1997)
 - 표집오차의 신뢰구간은 신뢰도와 다르다
 -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오차한계는 $\pm 3.1\%$ 이다”는 잘못된 기술

- 4) 기사 작성자 개인 의견의 개입
 - 개인의 가치가 아닌 사회보편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 형용사(압도적), 부사(매우, 훨씬, 급격히 등)의 빈번한 사용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정

1. 포럼의 출범



- ▶ 20대 총선의 참담한 여론조사 예측 실패로 인한 언론계 내부 자성의 목소리
 - 과학적인 객관성을 잃은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들, 법적 규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합의
 - 2016년 6월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포럼 주관: 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학계, 여론조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참여
 - 진지하게 여론조사 보도 문제점 분석하고 여론조사와 보도를 개선할 방안 논의

2. 주요 쟁점

- '준칙이 요구하는 여론조사 및 보도의 완결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 '제정된 준칙은 지켜져야 한다. 미디어가 큰 어려움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자'
(현실론)
- v. '과학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및 보도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유해하다'(원칙론)
- 토론과 논쟁 결과, '준칙 제정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도록 여론조사 및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수렴

3. 논의 과정

- ▶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신뢰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고려
- ▶ 미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개별 언론사들이 선거여론조사 보도를 내부 규정으로 관리 (언론의 자유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 ▶ 궁극적으로는 각 언론사의 자체 규범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 그러나 현재의 언론 상황은 그런 방식의 개선 기대하기 어려움
- ▶ 언론사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무분별한 맹신, 속보 경쟁, 선거철 특수를 노린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과 값싼 비용의 여론조사, 전문기자의 부족 등
- ▶ 언론단체들이 먼저 선거여론조사 보도 기준 마련해 문제 심각성 환기시킬 필요
- ▶ 언론단체들이 스스로 올바른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감대 마련했다는 데 의의

보도준칙 제정 이후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현황

1. 월별 제재건수 통계

종 별	기 간	2월	3월	4월	5월	계
일간신문		4	9	6	10	29
온라인신문		6	8	7	1	22
계		10	17	13	11	51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서울신문	1. 2.	<p>潘 21.7 文 18.5 李<이재명> 11.5%.. 潘 지지층 절반 "독자 신당" 선호</p> <p><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2003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차범위 내에 있는 반기문과 문재인을 1,2위로 단정적으로 표현 오차범위 내 지지율 수치를 제목으로 선정 	주 의
한국경제	1. 2.	<p>경제성장 이끌 후보, 문재인<13.6%> 1위... 이재명<12%>...</p> <p><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0100761&intype=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를 '1위로 명시하는 등 후보간 격차가 확연하다는 식으로 제목 선정 	주 의
한국일보	1. 31.	<p>안희정 지지율 쑥... 이재명 제치고 野후보 적합도 2위</p> <p><http://www.hankookilbo.com/v/679ecdf230084e8fa0dd1059cc88d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희정과 안철수,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순위 매기기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보다 뒤지던 지지율을 끌어올려 야권후보 2위가 됐다는 식 제목 선정 	주 의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신문사 게재일

본문 캡처



서울신문

1. 2.

1일 서울신문과 에이스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은 21.7%로 집계됐다. 1위 주자인데도 국민 5명 중 1명이 지지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10%대 지지율(11.5%)을 기록했다. 대신 부동산이 3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11.5%로 10%대를 지켰으며 나머지 주자들은 모두 10% 이하에 머물렀다. 조재목 에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아시아경제	2. 9.	<p>둘이든 셋이든/文, 50% 넘는다</p> <p><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9102743605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교안 대행과 안희정 지사의 차이는 0.2%p 임에도 '2위' '3위' 등 구체적 순위 명시 <p>예)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초박빙 격차로 추격 중이다" 등</p>	주 의
헤럴드경제	2. 9.	<p>거침없는 黃, 2위 점프...文, 압도적 1위</p> <p><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2090002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차범위 내 수치 인용 제목 및 기사 본문에서 순위매기기 <p>예) "2위에 올랐다" "오차범위 내에서 따돌렸다" "초박빙의 격차로 밀려 3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등</p>	주 의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신문사

게재일

본문 캡처

아시아경제

2. 9.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황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모두 15%를 돌파했다.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3.5%포인트 오른 15.9%였다. 조사 이래 처음으로 15%선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안 지사는 2.7%포인트 오른 15.7%로 황 권한대행을 초박빙 격차로 추격 중이다.

헤럴드경제

2. 9.

공식적인 대선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황 권한대행은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새누리당 지지층의 대다수를 흡수하고 영남권·서울, 호남권, 50대 이상과 30대 이하, 새누리당·바른정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결집해 15% 선을 넘기며 2위로 뛰어올랐다.

안 지사는 '대연정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자신의 최고치를 3주 연속 경신하고 15%를 넘어섰으나 황 권한대행에 초박빙의 격차로 밀려 3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파이낸셜뉴스	2. 10.	<p>황교안 지지율 15.9%...안희정 <15.7%> 제치고 2위</p> <p><http://www.fnnews.com/news/2017020917380884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차범위 내 수치에 순위 매겨 제목으로 선정 <p>예) "황 권한대행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제쳤다" 등</p>	주의
대구신문	2. 10.	<p>潘 물러나자 문제인 대세론 확산, 황교안 안희정 제치고 2위 올라</p> <p><http://www.idaegu.co.kr/news.php?code=po&mode=view&num=217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차범위 내 수치에 순위 매겨 제목으로 선정 <p>예) "황 권한대행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범위에서 제치고 2위로 올랐다" 등</p>	주의
서울일보	2. 10.	<p>황교안 대행, 안희정 충남지사 제치고 2위 경총</p> <p><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차범위 내 수치에 순위 매겨 제목으로 선정 <p>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 범위에서 제치고 처음 2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등</p>	주의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경향신문	4. 10.	대선 D-29...중도층 표심·지지층 결집 '변수' < http://news.khancok.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704092251015 >	주의
내일신문	"	D-29, 문재인-안철수 다자구도 대결해도 '팽팽'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3588 >	"
동아일보	"	대선 D-29... 文vs安 초접전/안철수 36.8%-문재인 32.7%...외 < http://news.donga.com/3/all/20170410/83773997/1 >	"
매일경제	"	거센 安風...다자대결서도 문과 초접전 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40590 >	"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서울경제	4. 10.	대선 D-29 요동치는 판세/다자구도 일부조사 安>文 외 < http://www.sedaily.com/NewsView/1OELBFPG46 >	주 의
서울신문	"	거센 安風... 다자대결서 처음으로 文 추월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0004013 >	"
중앙일보	"	안철수, 다자 대결 여론조사서 첫 1위/문재인에 오차범위 내 우세 < http://www.joins.com/V2?mseq=11&pseq=34484&jseq=957710 >	"
한국경제	"	35.2% 34.5% 文-安 '소수점 싸움' 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0965191 >	"
서울신문	4. 6.	<5자 대결> 文 38% 安 34.4% '대세론 흔들'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6001015 >	"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순위 명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1,2위를 차지했다" 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2016.12.8. 시행))
-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 훼손할 수 있음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위반)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 오차범위 내의 경합을 '추월' '역전' '승리' '초접전' '우세'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한 기사들은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참고.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 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 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2. 오차범위 내 순위매기기

※ 참고.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12. 누가 선두인가?

만일 두 후보간 격차가 오차한계보다 작다면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앞섰다고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대신에 '접전을 벌인다', '대체로 비슷하다', '후보들간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같지 않는 한, 결승점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말 할 수는 없다.

한편 확실한 것은, 후보자가 두 명이고 부동층이 없을 경우 두 후보간의 격차가 오차한계의 두 배 이상이면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확실히 앞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두 후보간의 격차가 오차한계보다는 크지만 두 배 미만일 경우는, 한 후보가 '앞서고 있다'거나 '유리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후보가 앞설 약간의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여자, 농민, 청년 등 하위집단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그 수치들에 대한 표집오차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오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다.

3. 다른 조사결과 비교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헤럴드경제	2. 13.	文 40% vs 안희정 33%/후보적합도도 접전 양상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213000543 >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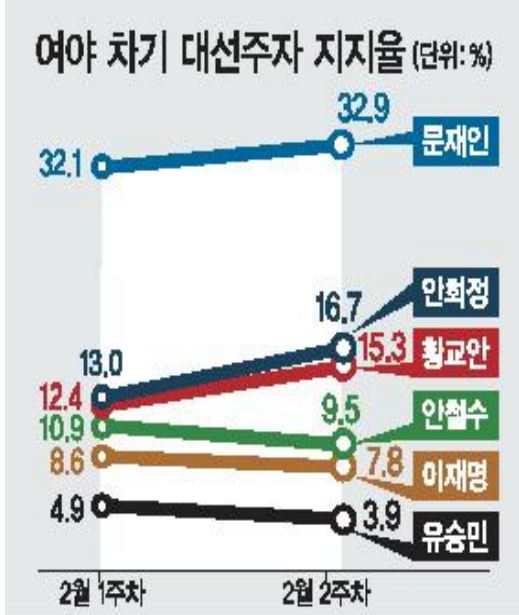


- 2월 1주차와 2월 2주차 여론조사: 조사 방법 서로 다름
(2월 1주차: '유선10%, 무선44%, 무선전화면접13%, 스마트폰앱33%/
2월 2주차: '유선10%, 무선70%, 무선전화면접20%)
- 조사 방법의 상이함이나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 밝히지 않음
- 표본오차 설명도 2월 2주차 기준으로 명시
(2월 1주차: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2.5%p)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7조(조사 결과의 비교) 위반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조사기간: 2월 6~10일, 조사기관: 리얼미터

3. 다른 조사결과 비교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헤럴드경제	2. 13.	文 40% vs 안희정 33%/후보적합도도 접전 양상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213000543 >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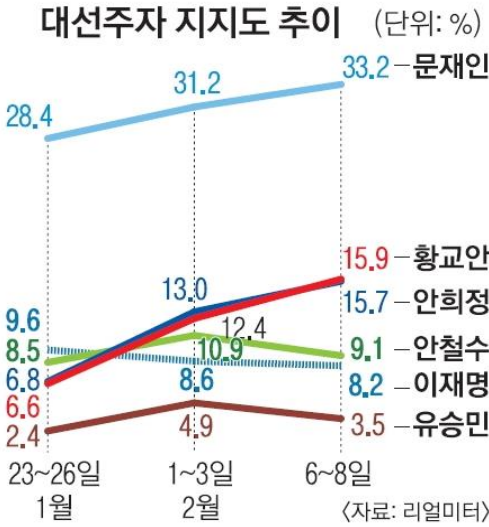


※ 참고.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7조(조사 결과의 비교)
 ①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② '지지율 조사'와 '선호도 조사'처럼 성격이 다른 여론조사들을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③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표현을 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의 추세, 최대 표본오차, 표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0%포인트, 조사기간 : 2월 6~10일, 조사기관 : 리얼미터

3. 다른 조사결과 비교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서울신문	2. 10.	황교안 15.9%로 첫 2위 '점프'/문재인 33.2%...안희정 15.7%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0006008 >	주의
매일경제	2. 21.	안희정 4주 연속 '쾌속'/文 32.5% vs 安 20.4%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20442 >	주의



➤ 조사표본의 차이

1월 넷째주
: 유선10%, 무선26%, 무선전화면접19%, 스마트폰앱40%, 무선(자체DB)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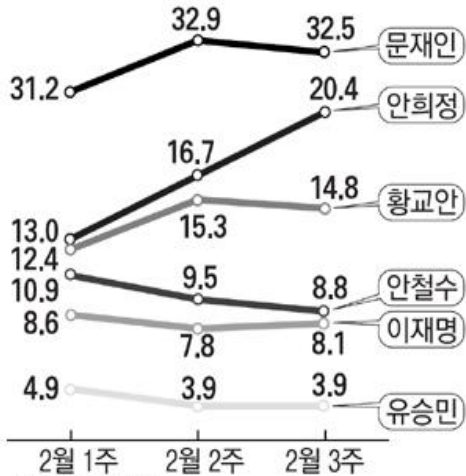
2월 첫째주
: 유선10%, 무선44%, 무선전화면접13%, 스마트폰앱33%

2월 둘째주, 셋째주
: 유선10%, 무선70%, 무선전화면접20%

3. 다른 조사결과 비교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서울신문	2. 10.	황교안 15.9%로 첫 2위 '점프'/문재인 33.2%...안희정 15.7%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0006008 >	주의
매일경제	2. 21.	안희정 4주 연속 '괘속'/文 32.5% vs 安 20.4%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20442 >	주의

대선주자 지지율 변화(단위=%)



*자료=리얼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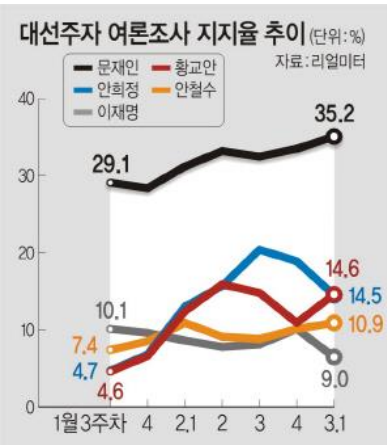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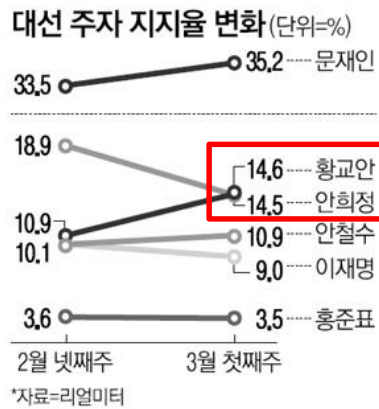


- ▶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 비교 가능
- ▶ 기사에 인용된 조사 결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하지만 기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의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도

3. 다른 조사결과 비교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문화일보	3. 2.	'보수 결집' 황교안 3.7%p 올라 2위...안희정 2주째 하락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0201070521083001 >	주 의
헤럴드경제	"	黃, 특검연장거부 보수결집효과/안희정 지사 제치고 2위도약...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302000428 >	"
매일경제	3. 3.	황교안 약진...안희정 제치고 2위/文 35.2>黃 14.6>安 14.5 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6039 >	"

3. 다른 조사결과 비교 문제



* 리얼미터, 27~28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 리얼미터 조사 인용 보도
- 2월 4주차: '유선10%, 무선56%, 무선전화면접18%, 무선(자체구축DB16%) / 조사대상 1008명
3월 1주차: '유선10%, 무선73%, 무선전화면접17%) / 조사대상 2516명
- 황교안(14.6%), 안희정(14.5%)로 0.1%p 차이임에도 지지율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처럼 기술

4. 하위표본 분석 시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국민일보	2. 21.	진격의 안희정, 수도권서도 文 톡밀 추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id=0923698073&code=11121100&qp=nv	주의

지역별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구분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이재명	안철수
서울	33.5	16.9	11.0	9.9	10.4
인천/경기	28.6	20.0	12.2	11.1	5.0
대전/세종/충청	29.1	40.3	8.4	13.1	3.3
광주/전라	42.0	17.0	5.9	6.3	10.6
대구/경북	24.8	19.3	26.4	8.8	7.7
부산/울산/경남	37.6	17.0	16.4	5.5	7.0
강원/제주	24.6	27.8	8.3	13.4	11.7

* 굵은 글씨가 1위

국민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서울(33.5%)과 인천·경기(28.6%), 호남(42.0%), 부산·울산·경남(37.6%) 등 다수 지역에서 1위를 지켰다.

안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거점인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40.3%의 지지를 받아 문 전 대표(29.1%)를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렸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27.8%를 얻어 지난 조사(11.0%)에 비해 대폭 상승한 지지율로 처음 1위에 올랐다. 최다 유권자를 보유한 인천·경기 지역에선 28.0%로 2위였지만 문 전 대표와의 차이는 0.6% 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7.0%를 기록해 황 권한대행(16.4%)을 제치는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위권 이상을 유지했다.



-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 · 연령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분석 할 때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차이를 부각시켜서는 안됨
- 95%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 표본오차는 하위표본일수록 더욱 커짐
- 개체 샘플수가 줄어들수록 오차한계가 커지므로 그 결과치에 지나치게 의미부여 해서는 안됨

4. 하위표본 분석 시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국민일보	2. 21.	진격의 안희정, 수도권서도 文 톡밀 추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id=0923698073&code=1121100&qp=nv	주의

지역별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구분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이재명	안철수
서울	33.5	16.9	11.0	9.9	10.4
인천/경기	28.6	20.0	12.2	11.1	5.0
대전/세종/충청	29.1	40.3	8.4	13.1	3.3
광주/전라	42.0	17.0	5.9	6.3	10.6
대구/경북	24.8	19.3	26.4	8.8	7.7
부산/울산/경남	37.6	17.0	16.4	5.5	7.0
강원/제주	24.6	27.8	8.3	13.4	11.7

국민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서울(33.5%)과 인천·경기(28.6%), 호남(42.0%), 부산·울산·경남(37.6%) 등 다수 지역에서 1위를 지켰다.

안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거점인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40.3%의 지지를 받아 문 전 대표(29.1%)를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렸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27.8%를 얻어 지난 조사(11.0%)에 비해 대폭 상승한 지지율로 처음 1위에 올랐다. 최다 유권자를 보유한 인천·경기 지역에선 28.0%로 2위였지만 문 전 대표와의 차이는 0.6% 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7.0%를 기록해 황 권한대행(16.4%)을 제치는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위권 이상을 유지했다.

* 굵은 글씨가 1위



(참고)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23조 (하위표본 분석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위표본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하위표본 분석 시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국민일보	2. 21.	진격의 안희정, 수도권서도 文 톡밀 추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id=0923698073&code=11121100&qp=nv	주의

지역별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구분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이재명	안철수
서울	33.5	16.9	11.0	9.9	10.4
인천/경기	28.6	20.0	12.2	11.1	5.0
대전/세종/충청	29.1	40.3	8.4	13.1	3.3
광주/전라	42.0	17.0	5.9	6.3	10.6
대구/경북	24.8	19.3	26.4	8.8	7.7
부산/울산/경남	37.6	17.0	16.4	5.5	7.0
강원/제주	24.6	27.8	8.3	13.4	11.7

* 굵은 글씨가 1위

국민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서울(33.5%)과 인천·경기(28.6%), 호남(42.0%), 부산·울산·경남(37.6%) 등 다수 지역에서 1위를 지켰다.

안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거점인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40.3%의 지지를 받아 문 전 대표(29.1%)를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렸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27.8%를 얻어 지난 조사(11.0%)에 비해 대폭 상승한 지지율로 처음 1위에 올랐다. 최다 유권자를 보유한 인천·경기 지역에선 28.0%로 2위였지만 문 전 대표와의 차이는 0.6% 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7.0%를 기록해 황 권한대행(16.4%)을 제치는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위권 이상을 유지했다.



- 기사에 표본오차 명시되지 않음: 국민일보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1면과 3면에 걸쳐 보도했으나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조사개요를 담은 표 누락
- 표본오차 등 조사개요는 여론조사 공표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

4. 하위표본 분석 시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국민일보	2. 21.	진격의 안희정, 수도권서도 文 톡밀 추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id=0923698073&code=11121100&qp=nv	주의

국민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서울(33.5%)과 인천·경기(28.6%), 호남(42.0%), 부산·울산·경남(37.6%) 등 다수 지역에서 1위를 지켰다.

【 표 3 】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재질문 포함)

	조사원표	문재인	안희정	홍교안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남경필	기타	지지 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13)	31.9	23.3	12.8	9.6	7.6	3.0	1.2	1.0	7.9	1.7	100.0	
성별	남성	(564)	33.8	20.1	11.2	10.5	8.0	3.6	1.3	0.9	8.8	1.8	100.0
	여성	(449)	30.0	26.5	14.4	8.6	7.1	2.5	1.1	1.1	7.1	1.6	100.0
연령	만19세 ~29세	(158)	46.3	9.9	3.0	13.4	6.8	5.3	1.6	2.1	8.9	2.8	100.0
	30대	(145)	43.1	22.5	3.4	15.1	4.6	1.9	0.0	0.0	7.4	2.0	100.0
	40대	(200)	37.0	25.8	6.7	11.6	7.3	2.1	1.2	1.1	6.6	0.6	100.0
	50대	(206)	28.8	27.8	14.8	8.4	8.4	1.5	0.7	0.4	7.3	2.0	100.0
	60대 이상	(304)	10.9	28.1	30.8	1.8	9.9	4.3	2.2	1.3	9.4	1.4	100.0
지역	서울	(234)	33.5	16.9	11.0	9.9	10.4	5.4	0.4	1.5	9.4	1.7	100.0
	인천/경기	(263)	28.6	28.0	12.2	11.1	5.8	2.7	2.7	0.5	7.1	1.4	100.0
	대전/세종/충청	(108)	29.1	40.3	8.4	13.1	3.3	1.0	0.6	1.5	2.7	0.0	100.0
	광주/전라	(107)	42.0	17.0	5.9	6.3	10.6	1.9	0.7	1.3	11.5	2.7	100.0
	대구/경북	(103)	24.8	19.3	26.4	8.8	7.7	1.3	1.7	0.0	5.8	4.2	100.0
	부산/울산/경남	(152)	37.6	17.0	16.4	5.5	7.0	4.4	0.0	0.9	10.3	1.1	100.0
	강원/제주	(46)	24.6	27.8	8.3	13.4	11.7	2.0	0.0	2.4	7.3	2.4	100.0



➤ 설문은 대선후보 '적합도'였으나, 기사에서는 '지지도'라고 표현
- 지지율 조사와 적합도(선호도) 조사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함

4. 하위표본 분석 시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연합뉴스	2. 6.	대선주자지지도, 문재인 29.7% 1위 ... 안희정 14.2% 황교안 1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6/0200000000AKR20170206159300001.HTML	주의

하지만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으로 분석된 50대 연령층에서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 문 전 대표는 22.2%를 얻어 2위인 안 지사(17.9%)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4.3%포인트로 급격히 축소됐다. 그 뒤를 황 권한대행(14.9%), 안 전 대표(9.2%), 이 시장(5.6%), 유 의원(4.5%) 등이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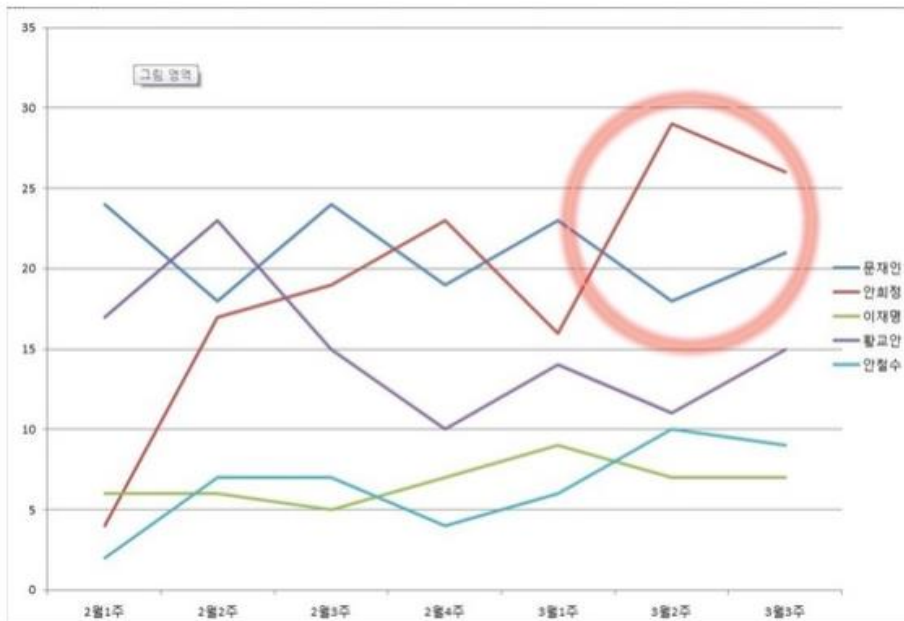
	조사완료 사례수 (명)	비율(%)	목표할당 사례수 (명)	비율(%)	가중 값 배율
전체	(2016)	100.0	(2016)	100.0	1.00
문 전 대표	(1056)	52.4	(998)	49.5	.95
안 지사	(960)	47.6	(1018)	50.5	1.06
유 의원	(310)	15.4	(354)	17.6	1.14
이 시장	(312)	15.5	(358)	17.8	1.15
안 전 대표	(401)	19.9	(417)	20.7	1.04
50대	(415)	20.6	(402)	20.0	.97
60대 이상	(578)	28.7	(485)	24.0	.84



- 50대 응답수 = 415명 (전체 20.6%) 불과
- 하위표본일수록 개체 샘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차범위 역시 전체 표본오차(±2.2%p) 보다 훨씬 넓어짐
- 이 경우, 통계적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순위 매기는 것 부적절
- 하위 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 제시해야 함

4. 하위표본 분석 시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중앙일보	3. 17.	TK 패권 민주당으로? ... 대선 지지율 1위 안희정, 2위 문재인 http://news.joins.com/article/21379967	주의



대선주자 지지율 1위와 2위 역시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안 지사는 TK에서 26%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위다.

문 전 대표도 지난주보다 3%포인트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TK 지지율 21%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9%를 기록하며 23%인 한국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바른정당은 8%를 기록하며 국민의당(9%)에 이은 4위에 그쳤다.

4. 하위표본 분석 시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중앙일보	3. 17.	TK 패권 민주당으로? ... 대선 지지율 1위 안희정, 2위 문재인 http://news Joins.com/article/21379967	주의

※ 참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응답자 특성표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9>



•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1월 행정자치부 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응답자 특성표 2017년 3월 3주 (14~16일)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배율 (B/A)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사례수 (명)(A)	비율	사례수 (명)(B)	비율		
전체	1,004	100%	1,004	100%	1.00	±3.1%p
지역별 서울	219	22%	198	20%	0.90	±6.6%p
인천/경기	304	30%	299	30%	0.98	±5.6%p
강원	21	2%	30	3%	1.45	±21.4%p
대전/세종/충청	105	10%	105	10%	1.00	±9.6%p
광주/전라	100	10%	101	10%	1.01	±9.8%p
대구/경북	94	9%	102	10%	1.08	±10.1%p
부산/울산/경남	147	15%	157	16%	1.07	±8.1%p
제주	14	1%	12	1%	0.87	±26.2%p

➤ (전체)표본오차는 ±3.1%p지만
 하위표본인 TK 지역만 놓고 보면 ±10.1%p

➤ 표본수(94명)도 작으데다 오차범위가 커서
 20.2%p 차이가 나야만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

4. 하위표본 분석 시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중앙일보	4. 25.	문재인 "TK에서도 1등, 50대서도 1등" ... 진실은? http://news Joins.com/article/21512651	주의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21~22일) 결과는 또 다르다. TK에서 문 후보가 29.9%를 얻어 29.2%에 그친 안 후보를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50대에서는 문 후보(35.5%)보다 안 후보(38.3%)가 우위를 보였다. (표본오차 ±2.5%p)

한국갤럽의 조사(18~20일) 결과 TK에서 문 후보(24%)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6%)에게 2%포인트 뒤졌다. 50대에서는 30% 대 40%로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뒤졌다. (표본오차 ±3.1%p)

프레시안이 리서치뷰와 18~20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후보의 TK지지율은 27.3%로 32.6%의 안 후보에게 밀렸다. 50대에서는 문 후보가 36%로 35.4%를 얻은 안 후보를 앞서 나갔다. (표본오차 ±2.2%p)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18~19일) 결과 TK에서 문 후보는 28.8%를 얻어 23.5%에 머문 안 후보를 따돌렸다. 50대에서도 문 후보(34.3%)가 안 후보(33.4%)를 제쳤다. (표본오차 ±3.1%p)



- 표본오차 감안할 때 기사에 여러 차례 언급한 "우위를 보였다" "뒤쳐졌다" "앞서 나갔다" "제쳤다" 등의 표현은 적절치 못함
-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서열화 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

5. 용어 사용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뉴스스	2. 3,	文 지지율 32% ... 안희정 2위로 '깜춤' 뒤이어 황교안 3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3_0014681875&cid=10303	주의

【서울=뉴스스】김형섭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은 결과 문 전 대표를 꼽은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 '지지도'가 아니라 '적합도' 또는 '선호도'가 맞는 표현

6. 위법 조사 결과 인용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한겨레	2. 6.	문재인, 다자·양자 모두 1위...안희정도 급상승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1417.html >	주의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결정
- 한겨레, 위법 결정 받은 여론조사 결과 인용해 보도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2조('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한다' 위반))

7. 뉴스스탠드 편집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아시아경제	2. 18.	안희정, 문재인 제쳤다...엄청난 반전	주의

아시아경제
 02-18 21:26 편집
 해마인 | 바이오키브
팬 하나로 만드는 파리의야경 19,000원 구매 시 5,700원 기부

[속보] 김현희, 김정남 피살에 하는 말이...
 안희정, 문재인 제쳤다...엄청난 반전
 "대권 심상찮다" 안희정-황교안 급격히...
 이재용 구속되자 조국 교수의 직격탄

[쿨]
 "특검 종료되면..." 채동욱의 대예언
 "문재인 큰일" 안희정에 밀렸다
 "조윤선 올고볼고..." 총력 폭로

[핫]
 진정현 베이글녀
 '리틀이건희' 뜬다
 톱모델의 위엄
 색시한 근육음매
 놀라운 그 항공사
 범접불가 보디라인

[방금 속보]
 * [속보] '구치소 첫날밤' 보낸 이재용 모습에
 * 北, 한밤중 해외서 '긴급 발표' 무슨 일?
 * "장시호와..." 이규혁 폭로에 김동성 격하게
 * 김정남 가족들, 어디 있나 했더니...
아무도 예상 못한 안희정의 '미친' 지지율

[깨알뉴스]
 * '이것' 많이 먹으면 발기부전 초래
 * 유통과 결혼한 33세 연하女的 반전
 * "순학규 움직이면 '큰일' 터진다" 또
안희정 "경악할 사건"...대체 뭐가?
 * 장제원 아들이 다닌 학교 알고보니

아시아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 ① 潘사퇴 후 충청표심 대이동...안희정, 압도적 1위
 최종수정 2017.02.15 04:15 기사입력 2017.02.14 19:2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419180436390>
- ② 문재인 32.9%·안희정 16.7%·황교안 15.3%
 최종수정 2017.02.14 04:01 기사입력 2017.02.13 09:3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308413653101>
- ③ 안희정, 지지율 첫 20% 돌파...문재인 33% 1위, 황교안·안철수 9%
 최종수정 2017.02.18 04:05 기사입력 2017.02.17 10:4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710342203449>
- ④ 안희정 "김정남 사망, 경악할 사건...내외적 불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최종수정 2017.02.16 04:15 기사입력 2017.02.15 17:2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517212308569>
- ⑤ 문재인 32.9%·안희정 16.7%·황교안 15.3%
 최종수정 2017.02.14 04:01 기사입력 2017.02.13 09:3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609253180982>

7. 뉴스스탠드 편집 문제

신문사	게재일	내용	위원회결정
아시아경제	2. 18.	안희정, 문재인 제쳤다...엄청난 반전	주의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안 지사 관련 뉴스를 다섯 건이나 배치한 것은 편파적
- 특히 1번 기사는 충청권 유권자만의 표심을 조사한 결과임에도 전국적인 현상인 것처럼 오도
- 같은 기사를, 제목을 달리해 2번과 5번으로 중복 배치한 것 또한 비정상적 편집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결론 및 제언

1. 여론조사 방법론 차원

- 안심번호 휴대전화 사용 조사 권한확대(조사회사)로 표집편향 문제 해결
-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의도를 파악하는 심층 질문 문항 사용
- 여론조사 심의기준 강화

2. 법적·제도적 차원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개정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의 논의 필요

- 여론조사 업계 종사자의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여론조사 결과의 전략적 활용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

3. 여론조사 저널리즘 관행 차원

- 선거저널리즘(예, 과도한 경마저널리즘) 관행 개선
- 여론조사 결과 해석 관련 부적절한 관행 개선(표집오차, 응답률, 편향적 해석)
-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여론조사 뉴스는 언론의 공적 책무 실천에 부합
- 승패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 구축 목적의 미래 지향적 여론조사 뉴스 생산으로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 기준 제공

참고문헌

- 권혁남 (1991). 언론의 여론조사보도 평가: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보도 검증. <신문과 방송>, 통권 247호, 6-10.
- 권혁남 (1997). 문제는 높은 무응답률: 여론조사 결과, 왜 신문마다 다른가. <신문과 방송>, 통권 322호, 19-24.
- 김춘식. 양승찬. 이강형. 황용석 (2012). 신문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보도 내용분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선우동훈. 윤석홍 (1999). <여론조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승찬 (2007). 2007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의 이슈와 언론보도에 대한 평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재단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언론: 종합평가와 과제> 세미나, 77-103.
- 윤석홍 (1997). 여론조사 보도 이대로는 안된다. <저널리즘 비평>, 22호, 18-24.
- 이재창 (1995). '바다낚시'식 여론조사 지양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296호, 4-9.
- 이준웅 (2004). 본래의미 왜곡 논조 정당화에 이용: 의견 왜곡한 여론조사 보도. <신문과 방송>, 통권 401호, 8-11.
- 조성겸 (1997).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 한국방송학회 가을철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1-157.
- 조성겸 (2001). 총선 예측조사의 편향과 예측치 추정과정. 한국언론학회 봄철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93-412.
- Bennett, L. (2012).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Chicago, 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man, H. (2008). *Method and meaning in polls and survey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감사합니다!